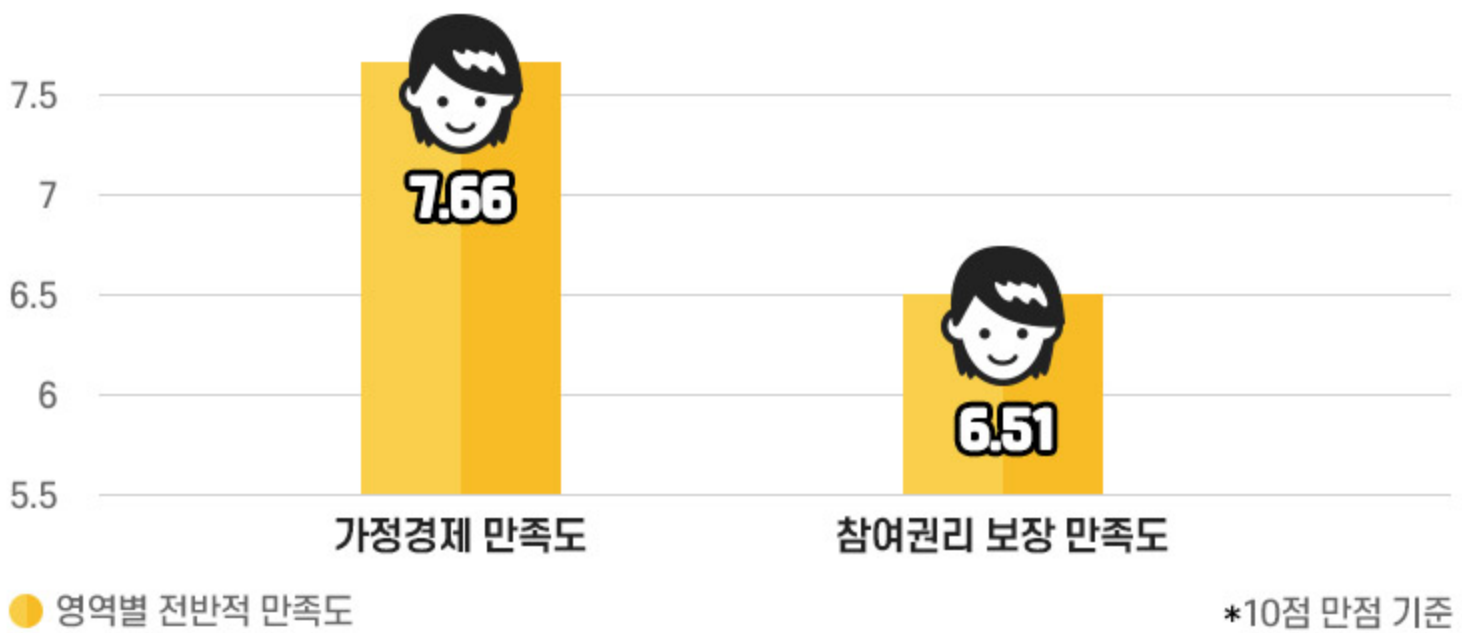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친화도시 청소년,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8,42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한 결과,
'가정경제 만족도'가 가장 높게,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 청소년은
비인증 지역의 청소년에 비해
참여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에 관한 주관적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죠.

지역사회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시설
안전도

전반적 참여 권리 보장
만족도

그렇다면, 아동친화도시는 무엇일까요?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현재 국내 96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도시는 44개에 달합니다.

아동친화 인증을 받은 도시는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동권리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청소년 활동 공간 건립

아동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자치 법규 제정

청소년 토론회 개최 및
모니터링단 구축

특히 아동친화도시 중에서도
높은 청소년 만족도를 보인 **경기도 오산시**는
학부모 6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권리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주도 하에 지역 축제를 기획하는 등
참여 기회를 높이도록 힘썼죠.

이 밖의 아동친화도시 또한
청소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쓰거나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를 확보해 관련 사업 및 정책에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성공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치 단체장의
높은 추진의지와 관심

민·관 협력과
후원 네트워크 확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기회 보장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행복도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인다면,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의 행복도는
사회 참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참여 지원 체계와 환경을
구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문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